

R&D팀

2021년 12월 MICE 산업 동향

202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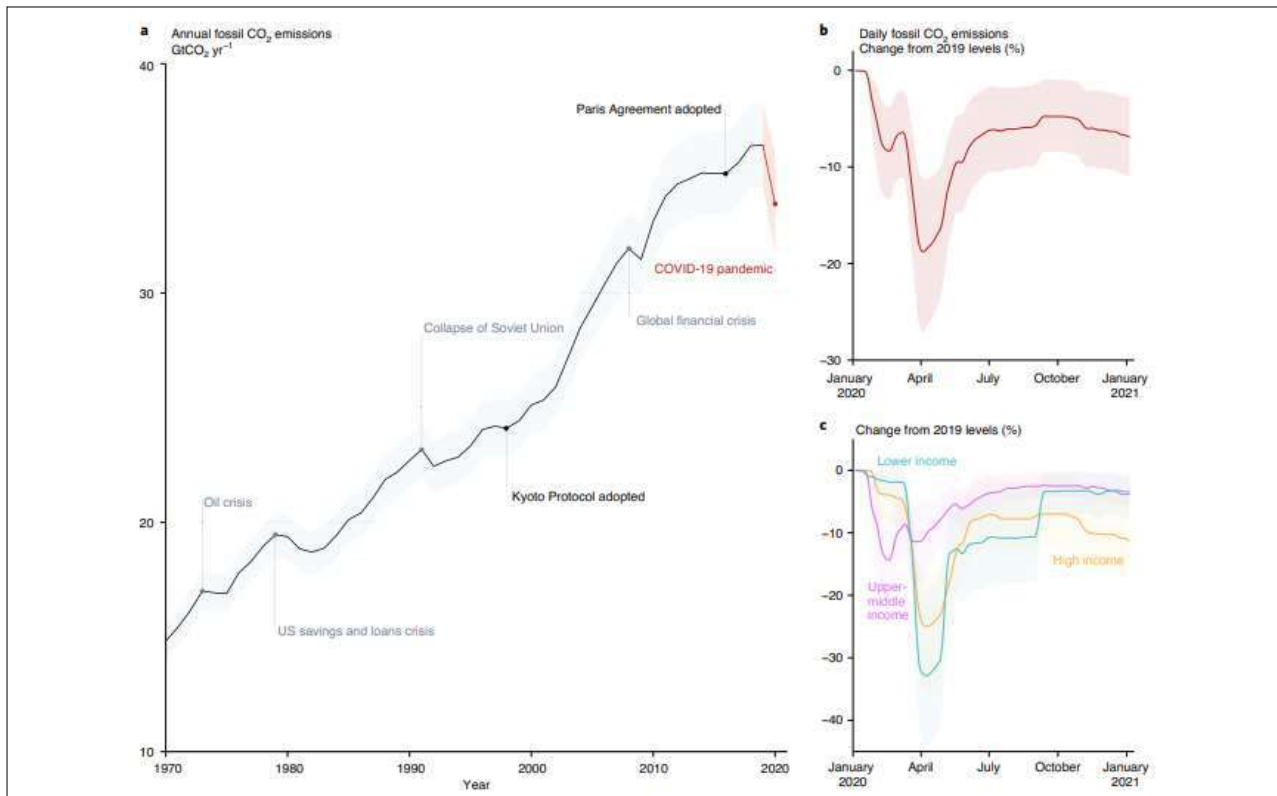
목 차

1. 지속가능성과 K-ESG	3
2. 해외시장 동향	9
3. 국내시장 동향	15

1. 지속가능성과 K-ESG

가. 팬데믹에 따른 기후환경 변화

- 전 세계적으로 항공 여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4%에 불과하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상업용 항공 여행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이 32% 증가하였음 (Graver, B. et al., 2019¹⁾)
- 팬데믹 발생에 따른 재택근무 증가, 여행 연기로 인해 2019년 대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 감소함 (Le Quéré, Corinne, et al., 2021²⁾)
 - 이산화탄소 배출량 7% 감소는 26억 톤의 이산화탄소 규모로 전례 없는 감소임
 - 2020년 4월 아시아, 유럽, 북미지역의 팬데믹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매일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9년 대비 17% 감소함(그림 1)
- 하지만 여행이 재개되고, 일상이 회복되면 다시 배출량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에 맞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여행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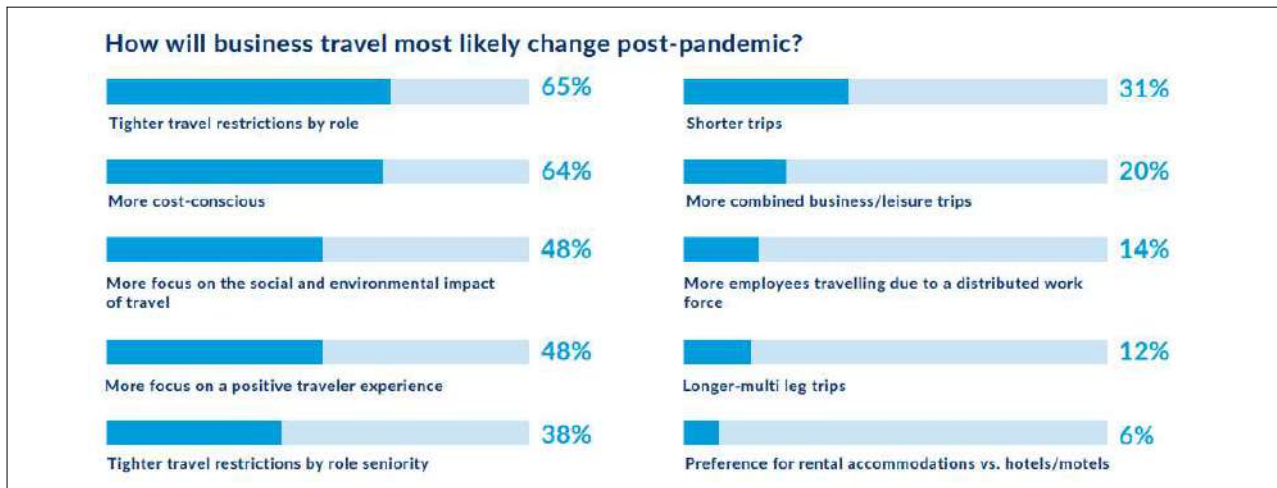
[그림 1] 팬데믹 발생 전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1) Graver, B., Zhang, K., & Rutherford, D. (2019). emissions from commercial aviation, 2018.

2) Le Quéré, Corinne, et al.(2021) "Fossil CO₂ emissions in the post-COVID-19 era." Nature Climate Change 11(3): 197-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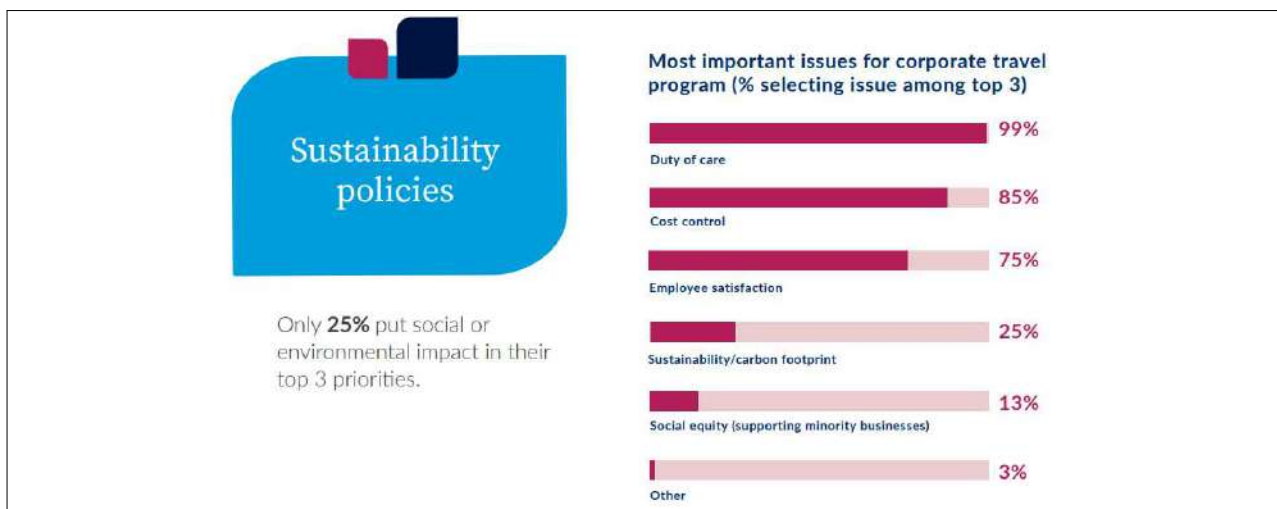
나. 지속가능한 여행에 대한 기업 인식³⁾

- 글로벌비즈니스여행협회(GBTA)는 미국, 캐나다 기업의 여행 매니저 22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여행 프로그램 재개 시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지에 대해 조사함
- 조사 결과, 기업의 약 절반(48%)은 전염병 이후 비즈니스 여행 프로그램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2] 포스트코로나 비즈니스 여행 형태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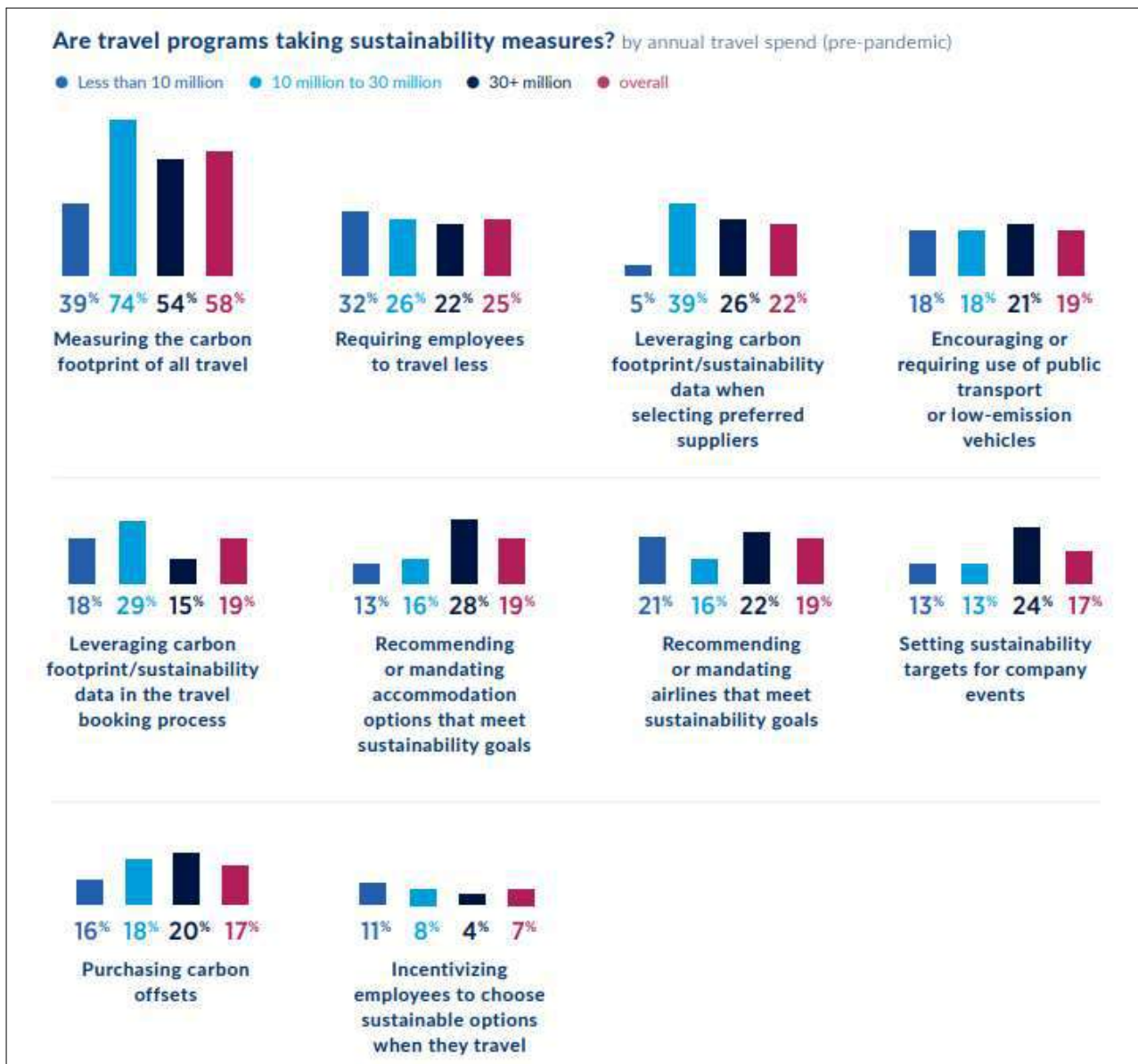
- 하지만 실제 조치에 있어서는 4개 조직 중 1개만(25%)이 ‘지속가능성/탄소 발자국’을 기업 여행 프로그램 기획 시 가장 중요한 Top 3 이슈로 고려하고 있었음
 - 가장 중요한 이슈로 케어 의무(99%), 비용 관리(85%), 직원 만족(75%) 순으로 응답함



[그림 3] 기업 여행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To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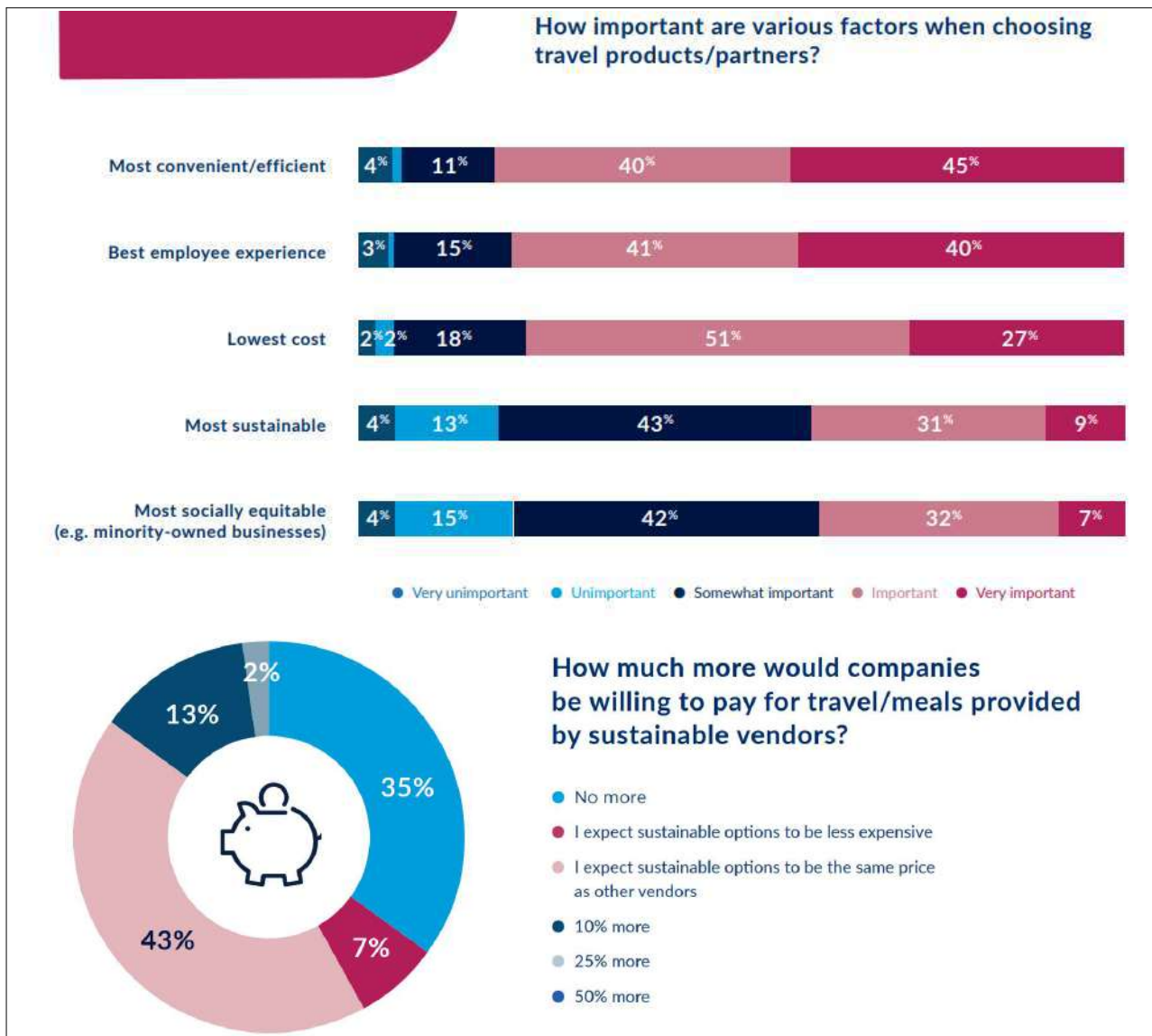
3) GBTA(2021), The Remaking of Business Travel: Sustainable Travel is More Aspiration than Action

- 10개 기업 중 6개사가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만, 10개 기업 중 3개만이 비즈니스 여행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
 - 응답 기업의 59%가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보유
 - 응답 기업의 35%가 비즈니스 여행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보유
 - 응답 기업의 28%가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미보유
- 비즈니스 여행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 여행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모든 여행의 탄소발자국 측정(58%), 직원들의 여행 횟수 감축(25%), 업체 선정 시 탄소발자국·지속가능성 데이터 활용(22%) 순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림 4]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여행 프로그램 운영 형태

- 기업들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지표에 대한 필요성과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행 프로그램을 보다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기를 원함
-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이 여행 프로그램을 친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실제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응답 기업의 85%가 지속가능한 업체와 협력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며, 15%만이 지속가능한 여행 옵션에 대해 10% 이상의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그림 5] 여행 파트너 선정 시 고려사항(상), 지속가능성 고려 지불 의향(하)

다. K-ESG 가이드라인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함

<표 1> ESG 개념

구분	주요 항목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으로 정의 (「지속가능발전법」 2020. 5. 26.제정)
환경 (Environment)	-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전반을 포괄하는 요소들이 포함되며, 최근 기후 변화와 관련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사회 (Social)	-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가 포함되고, 최근 인권, 안전·보건 등에 대한 이슈가 화두
지배구조 (Governance)	-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 및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영역으로 이사회의 다양성, 임원 급여, 윤리경영 및 감사기구 등이 강조

-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기업 및 자본시장의 ESG 확산 및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개별 이니셔티브는 정보공개 원칙, 지침, 지표, 방법론 등을 시장에 확산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표 2> 공공·민간 ESG 이니셔티브 동향

구분	주요 항목
UNGC	- 조직의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기초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직이 준수해야 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 제시
UN SDGs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릴 수 있도록 17개 분야, 169개 세부 목표 제시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 Apple, HP, Dell 등 전자제품 산업의 가치사슬(생산~소비)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등장하였으며, 최근 이니셔티브 가입 대상을 자동차, 항공, ICT 등의 산업으로 확장
Drive Sustainability	- BMW, Volvo, Daimler, Toyota 등 완성차 산업의 조달/생산/유통 단계에 잠재된 환경, 사회 이슈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완성차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
Plastic Economy, NaturALL Bottle Alliance	-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생분해 플라스틱 개발을 위해 산업계 공동의 기술개발 및 연구 활동 진행
Renewable Energy 100, Science Based Targets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배출량 관리 방법론을 개발 및 확산하는데 집중
GRI Standards, SASB Standards	- 조직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지침(Guidance)과 지표(Indicators) 제시

-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ESG 인프라 확충 방안(2021년 8월, 관계부처 합동)’의 중점 추진과제인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 등의 3,000여 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61개 ESG 이행과 평가사항을 마련함
 - KCGS, 어나, 에코바디스, 지속분석, WEF, GRI 등 13개 주요 등급기관을 통합하여 K-ESG 가이드라인 마련
 - 4개 주요 카테고리과 총 61개 요소로 구성되어, 1~2년마다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예정
 - 산업 및 기업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2022년부터 발표될 예정

<표 3> K-ESG 주요 평가 지표

구분	주요 항목
정보공시(5)	- ESG 정보공시 방식, 주기, 범위 등
환경(17)	-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 위반 등 -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재활용률 등
사회(22)	- 사회책임경영 목표, 채용, 산업재해, 법규위반 등 - 채용·정규직, 산업안전, 다양성,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
지배구조(17)	-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 구성, 주주권리 등 -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지단 항목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지단 항목
정보공시 (P) (5개 분항)	정보공시 형식	P-1-1	ESG 정보공시 방식	환경 (E) (17개 분항)	환경 법/규제 위반	E-8-1	환경 법/규제 위반
		P-1-2	ESG 정보공시 주기		환경 리스크	E-9-1	신재생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P-1-3	ESG 정보공시 범위	사회 (S) (22개 분항)	목표	S-1-1	목표 수립 및 공시
	정보공시 내용	P-2-1	ESG 핵심이슈 및 KPI		노동	S-2-1	신규 채용 및 교육 유지
환경 (E) (17개 분항)	환경경영 목표	P-3-1	ESG 정보공시 검증			S-2-2	정규직 비율
		E-1-1	환경경영 목표 수립			S-2-3	차별적 이직률
	원부자재	E-1-2	환경경영 추진체계			S-2-4	교육훈련비
		E-2-1	원부자재 사용량			S-2-5	특리후생비
	온실가스	E-2-2	재생 원부자재 비율			S-2-6	결사의 자유 보장
		E-3-1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Scope2)		다양성 및 양성평등	S-3-1	마성 구성원 비율
		E-3-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S-3-2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에너지	E-3-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S-3-3	장애인 고용률
		E-4-1	에너지 사용량	산업안전		S-4-1	안전보건 추진체계
	물수	E-4-2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S-4-2	산업재해율
		E-5-1	물수 사용량	연관		S-5-1	인권정책 수립
	폐기물	E-5-2	재사용 물수 비율			S-5-2	인권 리스크 평가
		E-6-1	폐기물 배출량	동반성장		S-6-1	협력사 ESG 경영
	오염물질	E-6-2	폐기물 재활용 비율			S-6-2	협력사 ESG 지원
		E-7-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S-6-3	협력사 ESG 협력사항
		E-7-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지역사회		S-7-1	지역사 사회공헌

[그림 6] K-ESG 가이드라인(2021. 12. 발표)

2. 해외시장 동향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 이스라엘: 아웃바운드 MICE 관광 홍보를 위해 인도 로드쇼 개최

- 이스라엘 관광부(IMOT)는 아웃바운드 MICE 여행에 중점을 둔 인도 여행 무역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12월 6일 첸나이를 시작으로 7일 벵갈루루, 9일 콜카타에서 로드쇼 개최
- 로드쇼는 주요 개발사업, 관광 인프라, 신규 호텔 오픈, 관광명소 등에 초점을 맞춘 목적지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관광 종사자들과 잠재 파트너들 사이의 네트워킹 세션으로 진행
- 이스라엘 대표단으로는 인도 및 필리핀 지역 담당 이스라엘 관광부 국장과 인도 이스라엘 관광부 마케팅 국장이 참석
- 이스라엘 관광부 국장은 이번 행사의 목표는 약 30여 명의 여행자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며 특히 MICE 목적지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힘



[그림 7] 인도 콜카타에서 진행한 이스라엘 관광부 로드쇼

나. 미주 지역

■ 미국 필라델피아: 국제전시회이벤트협회(IAEE), 연례 행사 ‘엑스포! 엑스포!(Expo! Expo!)’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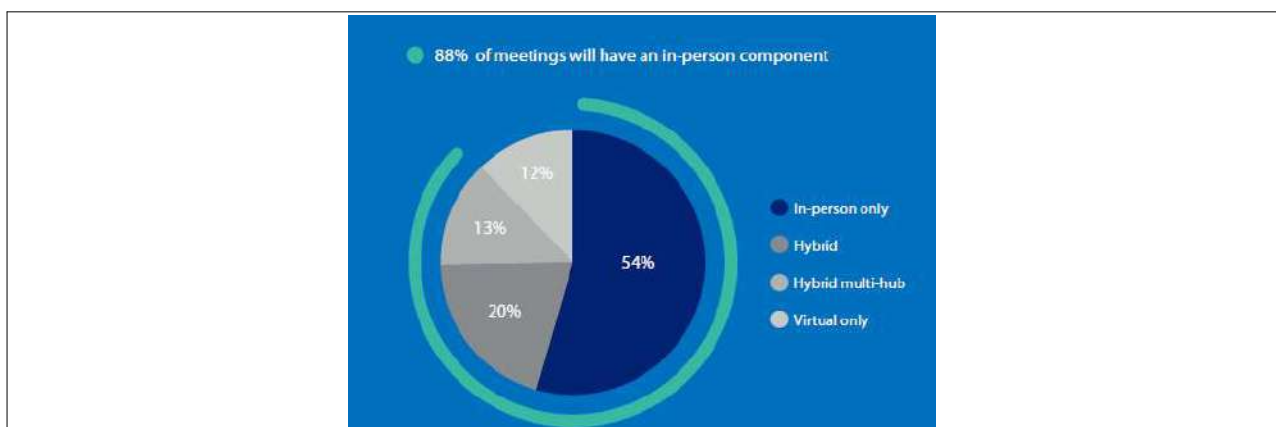
- 국제전시회이벤트협회(IAEE)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의 펜실 베니아 컨벤션센터에서 IAEE 연례 행사 ‘Expo! Expo!’를 개최해 12개국 1,284명의 전시 및 이벤트 업계 전문가들을 위한 네트워크의 장 형성
- 온라인과 더불어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여 188개 참가사가 27,000sq. ft 규모로 전시회에 참여하였으며, 행사장에는 3개의 교육장을 마련해 라이브 스트리밍 세션 진행
- ‘Expo! Expo!’ 가상 전시회에서는 사전 녹화된 교육 세션과 함께 청중들이 발표자 및 참가자들과 라이브 채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
- 전시전문가과정(CEM) 위원장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3,700개 이상의 CEM 대열에 합류한 올해의 CEM 학습 프로그램 졸업생 197명과 더불어 IAEE 인증 과정의 다음 단계인 CEM-Advanced Professional(CEM-AP)를 수여받은 4명의 전문가에 대한 환영사를 진행
- 기조연설에서는 업무 환경과 더불어 개인 일상에서의 더 넓은 의미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추진을 강조하며 변화와 도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패널 세션에서는 전시회 및 이벤트 업계의 COVID-19의 상황에서 회복과 기대에 관한 논의를 진행
 - 패널: Rachel Wimberly 비즈니스 개발 담당 수석 부사장(Tarsus U.S.) Michael Clarke 미주 B2B 이벤트 이사(Marriott International), Adam Sacks 대표(Oxford Economics Company), Megan Tanel 대표(장비제조업협회(AEM))



[그림 8] 국제전시회이벤트협회(IAEE) 주최 엑스포! 엑스포!(Expo! Expo!)

■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022년 글로벌 미팅 및 이벤트 개최 전망보고서' 발간

- 매년 MICE 산업 전망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는 '2022년 글로벌 미팅 및 이벤트 개최 전망보고서(2022 Global Meetings and Events Forecast)'를 공개하여 2022년 MICE 산업 동향을 제시함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MICE 행사 중단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MICE 형태가 등장하였다고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가상 및 하이브리드 행사를 선보이며 기존에 진행하였던 대면 행사가 아니더라도 고품질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함
-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MICE 산업이 직면한 위기가 존재하지만, 행사 개최 규모는 대부분 1~2년 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 발표함
 - 구체적으로, MICE 행사 개최의 경우, 응답자의 64%가 2021년 대면 행사를 예약하였고, 21%는 일부 대면 행사를 재개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 조직 내 팀의 교육 회의 및 단순 회의는 가상 및 하이브리드 형태가 4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가 발표한 북미 지역의 MICE 산업 전망은 2022년에는 모든 유형의 회의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였고, 대면 행사가 54%, 하이브리드 회의가 20%, 하이브리드 멀티방식 13%, 가상회의 12% 예측하여 대부분의 회의가 대면 요소를 포함할 것이라 발표함



[그림 9]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발표한 2022년 북미 지역 MICE 산업 회복 전망

■ 미국: 메르츠 글로벌 이벤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로 탄소이벤트 서약

- 글로벌 이벤트 회의 및 MICE 산업의 미국 대표 기업인 ‘메르츠 글로벌 이벤트 (Maritz Global Events)’는 최근 제로 탄소 이벤트(Net Zero Carbon Events)에 서약하여 지속 가능한 MICE 산업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힘
- ‘메르츠 글로벌 이벤트(Maritz Global Events)’는 파리협정의 2050년까지 MICE 업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MICE 산업 전반에 걸친 공동 의결 및 글로벌 협업 목표를 발표함
- 11월 10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컨퍼런스(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에서 제로 탄소 이벤트(Net Zero Carbon Events) 100개 이상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 활동은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MICE 업계의 협력 활동이라 평가받음
- 메르츠 글로벌 관계자에 따르면, 제로 탄소 이벤트(Net Zero Carbon Events)에 서명하는 것은 팀 구성원을 기후변화와 MICE 산업의 연관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며 또한, 지속 가능한 업계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 밝혔고 MICE 업계 동료들과 협력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라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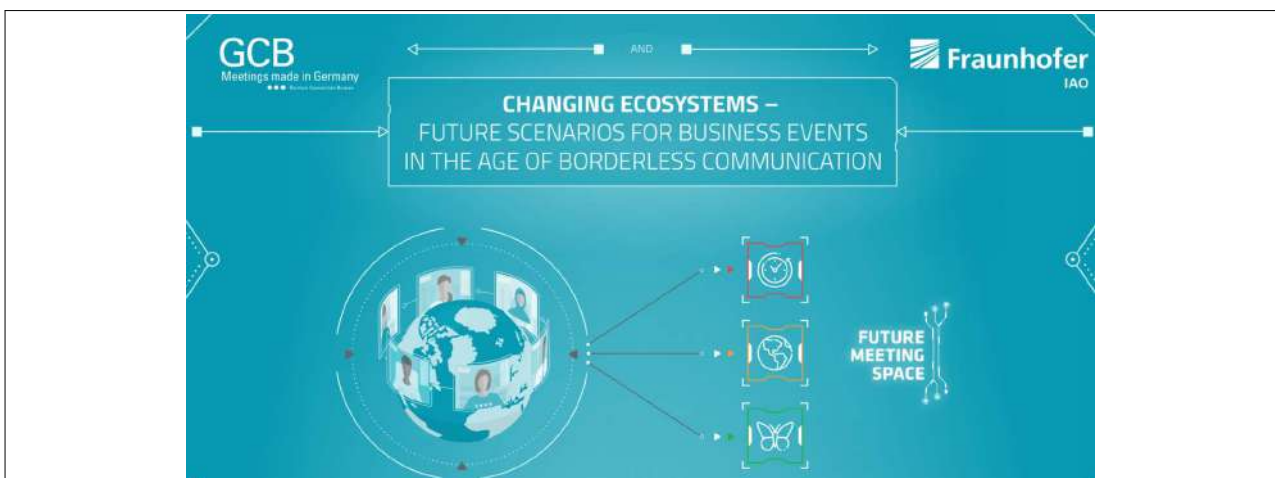


[그림 10] 제로 탄소 이벤트(Net Zero Carbon Events)에 동참한 메르츠 글로벌 이벤트

다. 유럽 지역

■ 독일: 독일컨벤션뷰로·프라운호퍼 IAO, '미래 이벤트 산업 생태계' 연구 발표

- 독일컨벤션뷰로(GCB)와 독일 연구재단 프라운호퍼 IAO(Fraunhofer IAO)가 운영하는 혁신 네트워크 조직 '퓨처 미팅 스페이스(Future Meeting Space)'가 진행한 '미래 이벤트 산업 생태계 연구' 결과 발표
- 이벤트 생태계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 기후 변화, 새로운 이동수단, 유연근무 등이 이벤트 산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새로운 행사 참여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요구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동수단, 생활환경, 지속가능성, 업무환경, 사회, 시장, 정치적 환경, 새로운 기술, 이벤트 형식, 지식 등 10개 핵심 영역에서 60개 이상의 영향 요인들을 평가
- 변화된 이벤트산업 환경에서 세 가지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함
 - 시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존의 르네상스: 친숙하고 과거에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의 회귀를 설명하며, 비즈니스 행사의 경우 대면회의가 가장 궁극적인 것을 의미
 - 다양하고 유연한 글로벌 커뮤니티: 회의, 이벤트 참석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실험 공간
 - 친환경적인 탄소제로 사회: 모든 참가자들의 행동과 결정은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친환경 행동을 고려



[그림 11] 자비츠센터 옥상 야외 농장

■ 스페인: 바르셀로나, 코로나 19 이후 2년 만에 첫 대면 행사인 '2021 IBTM WORLD' 개최

-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그란비아 전시장(Fira de Gran Via)에서 전 세계 관광 및 이벤트 산업 전문가가 모이는 2021 IBTM WORLD가 코로나 19 이후 2년 만에 첫 대면 행사로 개최되었음
- 2021 바르셀로나 IBTM WORLD는 코로나 19 이후 열리는 첫 대면 행사로서 업계의 관심을 받았으며, 이번 행사의 주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세계 (New Business, New Technology, New World)'로 진행됨
 - 이번 행사는 70개 국가에서 1,200개가 넘는 참가업체가 참여하여 MICE 업계의 높은 참가율을 기록하였고 1,400여 명의 바이어가 행사장에 방문하여 30,000건이 넘는 사전 예약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되어 업계의 긍정적 평가를 받음
- 주최 측은 비즈니스 미팅이 실내전시장뿐만 아니라 야외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공간을 활용한 비즈니스 라운지를 조성함
 - IBTM WORLD 이벤트 디렉터인 데이비드 톰슨(David Thompson)은 “이번 전시는 부스 면적으로 보면 2019년 전체의 70% 정도의 규모이지만 2022년에는 팬데믹 이전의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 이라 말함



[그림 12] 2021 스페인 바르셀로나 IBTM WORLD

3. 국내시장 동향

■ 서울: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장관급 회의가 될 전망이던 ‘평화유지 장관회의’, 전면 온라인 개최

-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전 세계 155개국 외교·국방장관을 초청해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전면 대면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서울 UN 평화유지(PKO) 장관회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급작스럽게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UN 사무차장 3인(평화활동국, 활동지원국, 운영전략정책·감사국)만 국내를 방문
- 2015년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과 UN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공동주최한 ‘평화유지 정상회의’의 후속회의인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UN의 최고위급 국제회의 중 하나로 본래 2021년 4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오미크론 변이에도 일정을 더 미루기보다 안전한 온라인 형태로 개최하기로 결정
- 2021년 4회째를 맞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아시아권에서 한국이 최초로 개최할 기회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장관급 회의였기 때문에 큰 기대를 불러모았으나, 변이 바이러스에 발목이 잡혀 온라인 행사로 전환되며 수백여 명의 각국 대표인단이 입국하지 못함에 따라 부수적인 경제효과 역시 크게 감소하였음
- 한편 평화유지 장관회의 외에도 한-아프리카 포럼, 재외공관장회의 등 12월 서울에서 대면 형태로 개최할 예정이던 각종 국제회의 및 외교행사 등은 모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면 온라인 개최로 전환되거나 연기되었음



[그림 13] UN 평화유지장관회의 개막식(사진출처: 리버티코리아포스트)

■ 서울: 콘래드 서울, 월드 MICE 어워즈에서 2021 한국 최고의 MICE호텔 선정

- 콘래드 서울, 월드 MICE 어워즈(World MICE Awards)에서 처음으로 2021 한국 최고의 MICE 호텔(South Korea's Best MICE Hotel 2021)을 수상
- 해당 시상식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월드 트래블 어워즈(World Travel Awards, WTA)의 자매격 시상식으로 2020년 WTA의 27주년을 기념하여 처음 실시된 이래 올해 2회째 개최되었으며,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4개 분야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시상을 진행
- 콘래드 서울의 경우 자체 방역 시스템인 '이벤트 레디(Event-Ready)'를 통해 안전한 MICE 활동 환경을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기존에 호평을 받은 바 있는 힐튼호텔의 '클린 스테이(Clean Stay)' 시스템을 확장해 미팅룸 소독 과정 10종을 추가하고 미팅 및 이벤트 시작 30분 전 주최자에게 방역 체크리스트를 공유, 철저한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음
- 이와 더불어 물리적 거리를 반영한 미팅 환경을 제공하고 1인 기준으로 식음료를 세팅하여 제공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감염병 전파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편의성과 서비스를 극대화하였다는 평을 받음
- 이외에도 고객에게 럭셔리한 경험을 선사하고, 고급 어메니티와 24시간 객실 서비스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 역시 호평을 받는 데 기여하였음
- 한편 콘래드 서울은 WTA에서 2021 한국 최고의 호텔(South Korea's Leading Hotel 2021) 및 2021 한국 최고의 스위트룸(South Korea's Leading Hotel Suite 2021) 등 2개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음



[그림 14] 콘래드 서울 전경(사진출처: 콘래드 서울)

■ 경기도: 수원시,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집적시설 업무협약 체결

-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롯데쇼핑아울렛 광고점, 아쿠아플라넷, 엘리웨이 광고,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아브뉴프랑 광고 등 주변 집적시설들과 업무협약 체결
 - 국제회의복합지구: 국제회의 시설과 국제회의 집적시설이 집적된 구역으로, 400만㎡ 이하 면적에 전문 회의시설과 숙박, 쇼핑, 공연장, 교통 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구역
-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지정요건을 갖춘 지자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 및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 및 승인이 이루어지면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최종 확정됨
- 수원시의 경우 2019년 개관한 전문 회의시설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코트야드 메리어트, 갤러리아백화점, 아쿠아플라넷 등을 묶어 '수원 MICE 복합단지'를 구성하고, 이외에도 롯데아울렛, 아브뉴프랑, 엘리웨이 등 쇼핑시설과 수원광고 박물관, 광고역사공원, 광고호수공원 등 문화·관광자원을 포함한 광고 일대를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신청할 계획
-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수원시는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각 협약 기관들과 공동사업 발굴, 각종 정보교류 및 공동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수원 MICE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며,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 산업, 정책 등 지역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MICE 브랜드를 개발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이후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



[그림 15]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집적시설 업무협약식(사진출처: 열린뉴스통신)

■ 경기도: 경기도 'MICE산업 중장기 육성 종합계획(2022~2026)' 수립

- 경기도,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따른 MICE산업 동향을 반영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될 'MICE산업 중장기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MICE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설 예정
- 이번 중장기 육성계획을 통해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 MICE생태계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성 확보'의 비전을 확립하였으며, △경기 MICE 정책기반 강화, △경기 MICE산업 역량강화, △경기 지역특화 MICE 육성 지원 강화, △경기 MICE 유치 및 개최 지역협력 강화 등 4대 전략방향을 제시, 14개 세부 추진 사업을 확정하였음
- 특히 도내 31개 시·군 지역의 MICE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제시
 - 소규모 회의 지원사업: 시·군 내 소규모 유사 MICE 행사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소규모 회의 관련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소규모 회의를 별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여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을 극대화할 주민주도형 형태의 회의로 육성할 계획
 - 지역 기반 산업 반영 MICE 행사: 31개 시·군 지역의 특색 및 기반 산업을 반영한 MICE 행사를 적극 유치하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예를 들어 고양시에서는 킨텍스를 기반으로 초대형 전시 및 국제회의를, 판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한 성남시는 IT산업 관련 MICE 활동을, 시흥시는 거북섬을 통한 세계 최대 해양테저형 관광 MICE 산업을 육성할 예정
 - 이외에도 스마트 MICE 기업 육성 지원 사업, 민간기업이 직접 행사 유치 시 홍보비를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경기 특화 MICE 육성 사업, 유니크메뉴에 기반한 지역 마이스 선도 모델 개발 등 다방면으로 도내 MICE 산업 활성화를 추진
- 경기도, 코로나19 및 4차산업 발전 등에 발맞춘 장기 비전을 통해 향후 5년 간 도내 권역별 MICE 기반 구축을 통해 포용적 성장과 지속성 확보에 힘쓸 계획



[그림 16] 경기도청 전경(사진출처: 경기도청)

■ 인천: 2021 하반기 인천 MICE 얼라이언스 정례회의 개최, 2022 MICE 활성화 사업계획 발표

- 인천시-인천관광공사, 12월 6일 ‘2021 하반기 인천 MICE 얼라이언스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2022 MICE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 코로나19 이후 2년 간 실시해온 방향성에서 탈피하여 오프라인 및 대면 중심의 공격적 도시마케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관광·MICE 시장 선점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
- 인천시는 2020년~2021년 두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우려하여 온라인 마케팅 및 온라인 행사에 집중해왔으나, 이번 발표한 2022년 사업계획을 토대로 각종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에 위한 오프라인 마케팅을 2년 만에 전격 재개할 계획
- 이에 따라 기존에 실시하던 온라인 행사에 대한 지원은 2022년 전면 중단되며, 대신 오프라인 행사 및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행사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하여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
- 또한, 기업회의 및 포상관광단 유치를 위한 티켓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신규 수요를 확보함은 물론 과거 인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재방문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재방문 마케팅’까지 동원할 계획
- 이에 더해 지난 2년 간 위기를 맞이했던 인천 국제회의 업계의 조기 회복을 위한 민관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으로, 디지털 마케팅, 사업화 자금 지원, 방역 및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해 나갈 전망
- 한편 이번 인천 MICE 얼라이언스 정례회의에서는 세계전람, 현대마린개발 등 총 15개 사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인천시-인천관광공사-인천 MICE 얼라이언스는 각종 MICE행사 및 단체 유치를 위한 정보공유·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한 공동 성명서에 합의하였음



[그림 17] 2021 하반기 인천 MICE 얼라이언스 정례회(사진출처: 한국경제)

■ 전라남도: 전남관광재단 12월 13일, 전남 휴양형 MICE 산업 활성화 포럼 개최

- 전남관광재단은 12월 13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남도와 ‘전남 휴양형 MICE 산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함
- ‘전남 휴양형 MICE 산업 활성화 포럼’ 주제는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뉴노멀 관광활동이고 그 중 ‘웰니스’, ‘생태’, ‘소규모’, ‘개별화’를 키워드로 포럼이 진행되었고, 이에 적합한 관광모델로 전남의 ‘휴양형 MICE’를 육성할 것이라 밝힘
- 또한, 전남관광재단의 ‘전남 휴양형 MICE 육성 계획’ 발표에 이어 조덕현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협력관이 ‘전남 MICE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음
- 특히, 가상화 시대에 따른 메타버스 세션이 진행되어 메타버스 전문기업 이프랜드(ifland) 가상 회의장에서 ‘전남 휴양형 MICE 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윤정 (주)글리덕 대표는 “전남의 바이오산업과 MICE를 연계해 해당 분야의 투자진흥은 물론 웰니스 관광을 활성화하는 융합전략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포럼에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함평 마한 고분군과 보성 녹차밭을 가상화 제페토(ZEPETO)에서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음
- 전남관광재단은 “MICE는 체류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1인당 소비액이 일반 관광에 비해 아주 크다”고 하였으며, “청정한 관광자원과 중소 규모 회의실을 연계한 휴양형 마이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지역민의 소득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밝힘

■ 부산: 2021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 총 28건 유치

- 부산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2021년 한 해 동안 국제행사 28건 유치에 성공, 2020년보다 유치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예년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음
-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벅스코 등이 협력하여 유치한 국제행사 28건은 국제회의 27건과 해외 기업 인센티브 관광 1건이며, 현재 유치활동을 진행중인 건들의 성사 여부에 따라서 연말까지 최대 4건의 국제회의를 추가 유치할 수 있을 전망
- 2022년에는 세계 내시경 복강경 외과 학술회의, 국제천문연맹총회, 아시아변리사 이사회, 대한토목컨벤션 등 대형 국제행사 13건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 17,000여 명이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
- 2023년에는 전 세계 바이오센서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바이오센서 세계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2년마다 열리는 바이오센서 및 바이오일렉트로닉스 관련 세계 최대 규모·최고 권위의 학술 행사인 만큼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실적
-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우주 연구 분야 최대 학술 행사인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총회를 개최, 총 60개국에서 3,000여 명의 세계적인 우주 관련 학자들이 부산에 모일 전망
- 12월 유치를 확정지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생화학 분자 생물학회는 2025년에 개최될 계획이며, 해당 행사를 통해 관련 분야 주요 인사 등 내외국인 4,000여 명이 벅스코를 방문할 예정



[그림 18] 각종 국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인 벅스코 전경(사진출처: 벅스코)

■ 부산: 부산관광공사, 부산 MICE 도시 · 블레저시티 홍보 및 부산시 협의회 결성 발표

-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 관광·MICE 협의회’를 결성 후 2021년 11월부터 MICE도시 부산을 홍보하기 위해 공동 마케팅을 진행 중임
- 부산관광공사는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역관광 추진조직(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DMO)’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부산시, 벡스코, 부산컨벤션산업협회 및 지역 대학 등이 참여하여 16개의 단체를 결성하였다고 발표함
- 2021년 부산시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에서 부산시 MICE 업계의 현안으로 첫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업계 공동 대응과 둘째로, MICE 수요회복 예상에 따른 선제적 마케팅을 선정하였음
- 부산관광공사는 ‘안전하고 MICE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공동 마케팅의 주제로 선정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달간 ‘2021 아시아 오세아니아 번역학회’,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1’ 등 8건의 주요 행사에서 MICE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주최자 및 참가자를 대상으로 방역키트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진행함
 - 또한, 비즈니스와 레저를 동시에 즐기는 ‘베스트 블레저 시티 부산(Best Bleisure City Busan, BBB)’홍보영상 시리즈를 제작하였고, 부산관광공사 SNS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였음



[그림 19] 부산관광공사 MICE 부산도시 홍보 부스